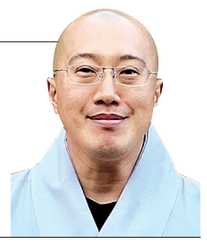
현불논단

일어날 일을 일어나게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양자역학 발전에 '자유의지' 의문 대두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유명한 명제
의지 아닌 과거 영향으로 현재 결정돼
불교 '인과 · 연기'와 비슷하면서 달라

탄생 이후 모든 게 결정된다는 결정론
부처님 부정했던 '카스트 제도'와 유사
'일어날 일을 일어나게 한다'로의 변화
스스로 주체되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4차 산업혁명,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챗GPT 등 이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살아가며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시대의 발전과 일상과의 격차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온 것들이다. 과거 천문학, 지질학이 발전하던 시기에도 민중들은 일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바빴고, 그것들을 다루는 몇몇 소위 지배층이나 지식인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다. 누구라도 손바닥 안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세상 곳곳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과거와 같이 다른 이의 것으로만 여기고 자신들은 그것에 따라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달이 무조건 우리의 편의를 돕거나 의지처가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양자역학이 발전하며 가장 두드러지게 대두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의문이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Whatever can happen will happen)' 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다. 이는 우리 인생과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사실 우리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에 의한 영향으로 일어난 결정된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는 불교의 '인과(因果), 연기(緣起)' 와도 상당히 유사하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이라고 하듯이 자신이 행한 과거의 원인이 업이라는 에너지가 되어 지금 혹은 다가올 미래에 결과를 불러온다는 가르침 그 자체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바로 일어날 일에 대한 자신의 '받아들임' 이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결정론은 한 사람이 태어나 갖게 되는 가족, 환경, 교육, 대인관계, 습관 등에 의해 그 사람의 삶의 궤적과 행동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즉 태어난 순간에 그 사람의 대부분의 삶이 갖춰지게 되고 그에 따라 점차 선로를 달리는 기차와 같이 그 선로의 목적지를 향해서만 달려가게 된다는 말이다.

이는 과거 부처님께서 무엇보다 부정하셨던 태어남에 의한 삶의 결정인 '카스트 제도' 와 같은 모습이다. 불교도 업에 의한 결정론인 '인과응보' 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카스트 제도, 양자역학의 그것과는 다른 점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투철하게 바라보고 알아차림으로써 다음 찰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다 중요시한다.

이것이 불교수행에서 말하는 '정견', '알아차림' 의 가르침이다. 이를 통해 지금의 자신이 겪는 상황에 대해 남 탓을 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한 참회를 하여 다음에 일어날 일을 확실하게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가 아닌 '일어날 일을 일어나게 한다' 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삶을 행동하고 그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이며 깨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살아간다. 지금 현대문명의 발달도 마찬가지이다. 낯설고 자신과 동떨어진 것들로 생각되겠지만 그것들에 대한 관심과 작은 이해라도 가질 때 다른 이에 의해 삶이 이끌려가지 않게 되고, 변화라는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일도 없게 된다. 오늘 당신의 삶은 오늘을 사는 당신만의 것이다. 잠시 후 일어날 일을 스스로 확인하여 지금 일어나게 만들자.

社 說

'인생 회향' 모범 보여준 노보살들

평생을 아끼며 모은 재산을 인재불사를 위해 회향한 80대 노보살들이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4월 6일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동국대 건학장학금 전달식' 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원성(이정옥) 보살, 대자행(권정원) 보살, 금강월(윤정희) 보살, 진여성(이성림) 보살, 불국화(홍옥자) 보살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산연꽃모임' 에서 만난 도반으로 신행과 지역사찰 봉사 등을 50여 년 간 펼쳐왔다. 어느덧 80대 노인이 된 보살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인재불사로 회향하고 싶다고 발원했고, 자신들이 마련한 49재 장례비용까지 모두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다.

기부금액이 5100만 원인 이유도 눈길을 끌었다. 본래 기부 동참 불자 1명이 1000만 원을 기부키로 했으나 대원성 보살의 지인이 1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며 최종적으로 5100만 원이 전달됐다. 노보살들의 소중한 정재는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동국대 대표 장학제도인 '동국건학장학' 장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자신이 닦은 선근공덕마저 자신이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의 '회향(廻向)' 은 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기치를 그대로 보여준다. 즉, '회향' 은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보살행' 의 궁극적인 태도다. 그래서 모든 불교의식에는 회향의 뜻을 필수적으로 반영한다. '중생무변서원도 · 번뇌무진서원단 · 법문무량서원학 · 불도무상서원성' 의 사홍서원 역시 불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회향의식이다.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을 선뜻 내놓은 80대 노보살들은 '회향' 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들의 회향이 민들레 홀씨처럼 아름답게 퍼져나가길 바란다.

불교계 4.3 유적 문화재 지정을

제주4.3항쟁 75주기를 맞아 4월 3일 서울 탐라영재관에서 '제주4.3 희생자 추모제사 및 4대 종단별 추모의례' 가 봉행됐다.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제주도민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길 바라는 간절함이 묻어난 자리였다. 또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4.3을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진상규명을 통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다짐의 자리기도 했다.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민 3만여 명이 희생됐다. 4.3특별법이 규정되긴 했지만, 미해결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피해에 대한 상처는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불교계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제주 산간지역이 적성구역(敵性區域)으로 간주됐다는 점이다. 그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살하겠다는 무시무시한 포고령이 내려지면서 수많은 사찰들이 항쟁 가담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4.3 당시 36개 사찰이 소실되고 16명의 스님이 희생됐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일 뿐 규명되지 않은 진실 속에서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적성구역에서 가람을 지키고자 머무른 스님들과 대중들이 포고령에 의해 무고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제주불교계는 관음사를 중심으로 앞으로 4.3유적들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앞장서, 4.3정신을 재조명하고 역사적 교훈을 전하는 현장으로 보존하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주4.3은 희생된 스님들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우리가 기억해야할 비극이자 평화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역사다. 4.3항쟁의 비참함이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불교계가 한 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⑬ 드라마 '더 글로리'

업보는 되돌아온다

'돼지의 왕' '더 글로리' '모범택시' '약한 영웅' '인간 수업' '구해줘' '펜트하우스' '학교 2015' '경이로운 소문' 등 최근 학교폭력을 제재로 다룬 드라마가 봇물 터지듯 방영되고 있다. 이는 여러 연예인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학폭투' (학교폭력 미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는 방증일 것이다.

학교폭력을 제재로 다룬 드라마 중 완성도 면에서 '돼지의 왕' 과 '더 글로리' 가 가장 수작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작품을 제외한 다른 작품들은 학교폭력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들의 서사를 종합하면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신체적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폭행을 당하고 음식을 강제로 먹는 등 온갖 폭력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심지어 '구해줘' 의 피해자는 참다못해 자살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반면 '돼지의 왕' 과 '더 글로리' 는 과거 학교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가 성장해서 가해자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들을 응징하는 '돼지의 왕' 과 달리 '더 글로리' 의 피해자인 동은(송혜교)은 치밀한 계획을 통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 복수에 성공한다.

가해자들의 리더인 연진은 "적당히 명망 있는 직업에 가장 예쁠 때 결혼해서 애를 한둘 정도 가지는" 꿈을 이뤘지만, 명오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돼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다.

명오를 시켜 동은을 빗속에 세워두고 옷을 젖게 만들어서 속옷을 훔쳐봤던 재준은 내연녀 연진의 남편인 도영에 의해 살해된다. 동은을 고데기로 지졌던 사라는 유명화가가 됐지만 머리핀 대신 쓰던 연필로 혜정의 목을 찌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감된다.

동은을 가해자들의 아지트인 강당으로 끌고 오는 역할을 한 혜정은 사라에 의해 목이 찔린 뒤 동거 중이던 재준에게도 버림받는다. 동은을 직접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했던 명오는 연진이 내려친 양주병에 머리를 맞은 게 원인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한다.

동은의 복수는 그야말로 동해보복에 해당한다. 사라의 손은 동은을 조롱하고 망가뜨렸던 손이다. 사라는 그 손으로 화가가 되고 마약을 하고 끝내 혜정의 목을 찌른다. 명오의 발은 동은의 고통에 앞장섰던 발이다. 명오는 죽기직전 그 발로 개처럼 기어 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혜정의 입은 동은의 고통에 크게 기뻐했던 입이다. 혜정은 그 입으로 친구들의 추문을 옮기다가 끝내 사라에 의해 목이 찔린 뒤 말을 잃는다. 재준의 눈은 동은을 비릿하게 바라봤던 음탕한 눈이다. 재준은 적록색약이라는 천형을 친딸에게 대물림하고 끝내 혜정에 의해 두 눈이 먼다. 그리고 폭행의 모든 순간에 기뻐했던 연진은 어릴 적 동은이 당했던 것처럼 가족들에게조차 철저하게 버려진다. 이러한 설정은 자신들이 지은 업보에 의해 자신이 벌전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글로리' 속 가해자들이 자승자박(自繩自縛)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탐, 진, 치 삼독심 때문이리라.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배송비 포함)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배송비 포함)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